



동남아 우수물류업체 BM후기

- (주)메디슨 최 경 순 과장 -

“기술에 의한 세계도전”이라는 가치아래 1985년 창립한 메디슨은 86년 매출 5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성장을 통해 88년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누르고 국내시장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Global No.1을 향해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초음파의료기기 회사이다.

한국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2006년 동남아 우수물류 업체 BM을 통한 혁신과 발상의 체험을 위해 (주)메디슨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물류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다.

물류협회 서병륜 회장님, 한국파렛트 컨테이너협회 김정식 회장님을 포함하여 21명이 동남아 물류 기지인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일찍부터 물류산업이 국제교역 활동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IT와 연결해 지식물류산업으로 발전시켜 4차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물류 Hub를 보면서 선진 물류의 현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디지털과 미디어를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speedy하고 지속적인 차별화를 달성하고 있으면서 사람, 화물, 정보교류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SCM물류 특강을 들으면서 싱가포르 물류인력 및 물류 관련 시스템은 과히 세계 최고 수준임을 느꼈다. 또한, 동남아 우수물류 연수 벤치마킹을 통해 회사의 물류관련 효율성을 찾고자 한다.

먼저 처음방문지인 Schenker Singapore 는 TNT, DHL 등을 활용한 4자물류 실시 및 통합 SCM 솔루션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의 복합적인 물류 솔루션과 부가가치적인 서비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고안하였다. 쉐커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각 지역의 허브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있어서, 정교한 창고관리시스템(WMS)과 효율적인 화물처리, 고객을 위한 빈틈없는 서비스와 신속한 리드타임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쉐커는 WMS와 TMS를 비롯한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일반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SAP등의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HTS라는 간결한 솔루션을 구축해 놓고 있었다.



1965년에 설립된 주룽 포트(Jurong Port)는 정부 소속의 공기업이지만 경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주요 벌크화물과 일반잡화화물을 위한 싱가포르의 관문이 되고 있으며 매년 7,000척 이상의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23개의 선석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크레인을 활용하는 한편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드라이 벌크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400만톤 이상의 시멘트를 하역할 수 있는 세계최대의 상용시멘트 터미널과 싱가포르 최대의 북측, 드라이브업 창고시설(Jurong Logistics Hub) 그리고 적재톤수 15만톤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수심 16미터의 싱가포르 최대의 항만부두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물도 자재도 없었던 싱가포르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아시아 선진 물류허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태국은 국제 경쟁의 심화에 따라 산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외국의 기술 및 장비, 수출업체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산업의 낙후화, 제조업의 방콕 및 일부 도시 지역에 대한 집중, 물류 인프라 부족 등 많은 부분에서 해외 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자본, 기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태국 투자청은 자국에 대한 투자 유망성과 물류 시장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상호 Win-Win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았다.

21세기는 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볼 때 사람, 화물, 정보교류의 중심이 되는 기업만이 살아 남을 것 이라 생각한다. 이제까지 제조업중심의 발전전략을 펼쳐오던 전략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첨단산업육성,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 발전 등에 대한 보완전략이 필요하더라는 것을 느꼈다.

21세기 국가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Key word는 속도(speed)와 차별화(差別化)라는 것을 이번 한국물류협회 주최의 동남아 우수 물류 BM연수에서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으로 행사기획 및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물류협회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물류**

